

지역 소식통

낙농유업협 정읍시지부 '코로나 극복' 성금 기탁

낙농유업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신용)는 2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신용 지부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며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사회에 솔선수범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낙농유업협 정읍시지부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산불예방 총력

고창군이 오는 4월 첫 번째, 두 번째 주말동안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명·한식 기간은 각 지역에서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산림 인접지역의 논·밭두렁 소각이 많아지는 시기다. 또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고창군은 비상근무를 확대하고, 공무원 250명과 산불진화전문인력 103명을 각 읍면의 산불취약마을에 배치해 현지출장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와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나섰다. 또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 주변과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계도·감시활동 등 특별 관리하고, 입산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산불가해지는 장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청명·한식 이후기간은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및 쓰레기 소각 등 화기를 취급에 주의하고 입산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특별지원사업 본격

무급휴직근로자·사각지대 생계비지원 등 피해 최소화
소상공인 공공요금·사회보험료 지원... 6일부터 접수

부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및 고용위기를 극복하고자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안정한 지역고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등으로 추진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과 코로나19 사각지대 지원사업, 코로나19 비정규직 실직자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 등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고용보험 가입)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코로나 19 피해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부터 무급휴직일을 기준으로 총 40일간 근로자 1인당 1일 2만 5000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급규모는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과 동일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직종으로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있다.

비정규직 실직자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은 실질 1개월 이상인 실직자를 우선으로 약 3개월간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며 부안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 약국지원, 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는 2020년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분의 공공요금 6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정 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장에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10%) 기간을 지난 3월 말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고 부안군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기존 월 2회(격주 금요일)에서 월 8회(매주 목·금요일)로 대폭 확대하고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상황 속에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은행, 정읍시 발전 적립기금 3061만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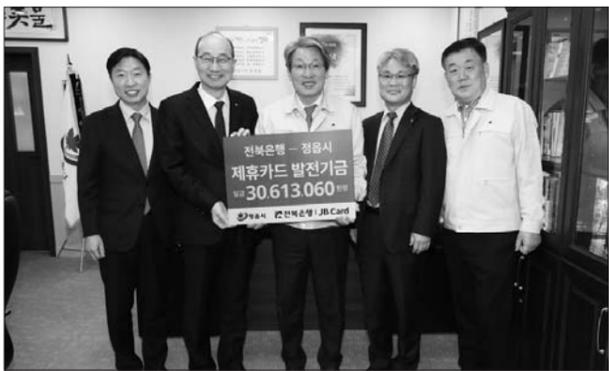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난 1일 정읍시 발전 적립기금 3,061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받은 적립기금은 정읍시청과 전북은행 간의 업무제휴로 법인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액의 1%를 정읍시 발전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유용욱 문화행정부국장, 권재현 회계과장과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 김동형 센터장, 서두원 정읍시청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유진섭 시장은 "전북은행과의 업무제휴로 함께 발전하고 전북은행이 시민을 위해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해 줘에 감사하다"며 "우리 시도 더욱 성장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동형 센터장은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난 1일 정읍시 발전 적립기금 3,061만 원을 전달했다.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정읍시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악취 배출' 축산시설 1개소 '특별관리'

정읍시는 덕면면에 소재한 축산시설 1개소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배출시설 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악취 배

출시설 신고 대상시설은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 관련 피해 민원을 제기해 온 사업장이다. 시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악취 검

사를 진행한 결과, 3회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 배출시설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베리앤바이오프로덕연구소(이사장 유기상 군수)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도 연구기반활용사업'에 전국 109개 운영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고창 베리앤바이오프로덕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선정

관내 농식품 업체 시제품 생산시 장비이용료 70% 지원

고창 베리앤바이오프로덕연구소(이사장 유기상 군수)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도 연구기반활용사업'에 전국 109개 운영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어 관내 농식품 중소기업이 시제품을 생산할 때 장비이용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연구기반활용사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첨단 연구·생산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비이용료의 최대 70%(업체당 500만원 한도)까지 바우처(쿠폰)로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가 및 농식품 업체의 시제품 개발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어,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의 활성화가 되어 농생 명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베리앤바이오프로덕연구소는 기

존의 동결건조, 파우치, 농축액 등의 생산장비 뿐만아니라 급냉에 새로 신축한 소스 공장의 식초, 잼, 소스 장비 등 최첨단 생산장비 17종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부터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i.auri.go.kr>)에서 상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베리앤바이오프로덕연구소(전화 063-560-5122)로 문의하면 된다.

유기상 이사장(고창군수)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기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관내 농식품 업체와 농특산물의 제품 가공을 원하는 지역민들이 새로운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여 고품 농식품 산업의 다양화를 추진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부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서 참가하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지급 한다고 밝혔다.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은 총 2288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원으로 3월분 선지급액은 6억 178만원이다.

활동비 선지급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지급하며 선지급분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될 예정이다.

읍·면과 수행기관의 선지급 동의를 접수 및 지급안내 등은 이메일, 팩스,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방법으로 이뤄지며 부득이하게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경우 지정접수처를 통해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르신 일자리 활동비가 중단되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자리 활동을 재개할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